

‘마의 도로’ 백운고가 광주시 관리책임

법원이 잦은 교통사고로 ‘마의 도로’라 불리는 백운고가에 대한 관리책임을 광주시에 물었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중앙분리대 등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 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자녀 B(당시 23·대학생)씨는 2016년 6월10일 오전 1시15분께 광주 남구 대남대로 왕복 4차로 백운고가로 조선대학교~주월교차로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했다.

B 씨는 백운고가로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던 고가도로 정상 부분 오른쪽으로 굽은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 2차로 약 90cm 높이의 시멘트 난간을 들이받고 고가도로 아래 도로에 떨어져 사망했다.

박 부장판사는 “광주시가 양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중앙선 침범을 방지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설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운고가도로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하자와 해당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단 “조향장치를 과대조작하는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B 씨의 과실도 있었다”며 광주시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박 판사는 광주시는 A 씨에게 사망한 B 씨의 일일 수의료와 위자료 등 총 5498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백운고가는 1989년 건설된 왕복 4차로의 약 385m 도로이다. 광주 구시가지를 순환하는 광주외곽 순환도로와 광주 구시가지에서 진월동, 나주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가 교차하는 백운광장 위를 통과하는 고가도로이다. 교통량이 하루 평균 10만여 대에 달한다.

최근 5년 간 경찰이 공식조사한 교통사고만 해도 51건이 발생했다. 51건의 교통사고 중 약 40건이 백운고가도로 위에서 발생한 사고다. 이 중 9건이 중앙선 침범 사고(차량 단독 중앙선 침범 사고도 수 건)이다. 추돌사고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선 침범사고 중 대부분 사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서 발생했다. 또 이 사고를 포함한 2건이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운전자 안전 위한 시설물 설치해야”

29년 전 건설...교통사고 위험 상존

편 차로 방호벽을 충격하는 사고였다.

사고 지점은 직선의 고가도로가 오른쪽으로 급격히 굽어지는 곳이다. 고가도로 정상 바로 직전에는 도로의 경사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방의 교통상황이 보이지 않는다.

광주시는 백운고가도로의 관리청으로 도로의 신설·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 행하고, 이를 유지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국토교통부령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1항은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해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단 4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규칙 38조 1항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선유도시설·방호울타리·충격흡수시설·조명시설 등의 도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중 차량방호 안전시설 편은 ‘도시 내 도로에 있어서

는 주행 속도가 높거나 중앙선 침범이 우려되는 위험한 구간 또는 불법 U턴 등을 막기 위해 설치가 필요한 구간에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영조물의 용도,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를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남겼다.

백운고가도로는 잦은 교통사고로 인해 ‘마의 도로’라 불릴 정도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한때 철거 논의도 이뤄졌지만 최근 수면 아래로 가리앉은 상태다.

주춘정 기자



청명에 내린 눈...한계령 일대는 겨울왕국. 청명인 5일 오전 강원 인제군 북면 한계령 일대에 밤새 눈이 내려 춘사 열의 설경을 연출하고 있다.

전남 교량·터널 안전 집중관리 대상 300곳으로 확대

전남도는 재난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도와 위임국도에 설치된 연장 20m 이상 100m 미만 교량 213개소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100m 이상 교량에 대해서만 1~2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월 개정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장 20~100m 교량을 제3종 시설물로 추가 지정·고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상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보다 철저하게 시

설물을 관리하게 됐다.

이 특별법은 한강 성수대교 붕괴 이후 강화된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규모에 따라 1종 및 2종 시설물로 구분해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올해부터는 지자체별로 연장 20~100m 교량 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정비했다.

전남도는 이를 근거로 대상 교량 213개소를 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해 인적재난 예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김정환 기자

“낙시가려고” 자전거·낙식대 탄 30대 영장

나주경찰서는 5일 빈집에서 자전거와 낙식대 탄 흉인 혐의(절도)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나주시 일대 빈집 5곳에 침입, 마당과 거실에 놓인 자전거 5대(1000만원 상당)와 낙식대 36개를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왜소한 체격에 몸이 불편한 A씨는 “자전거를 타고 낙식대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비닐하우스나 공중화장실 등지에서 숙식을 해결했으며, 보안이 허술한 집에서만 절도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다.

묘 이장 문제로 다투다 불 지른 50대 입건

완도경찰서는 5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A(5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완도군 자신의 집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집 90㎡ 중 44㎡가 타 소방서 추산 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친형과 묘 이장 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친형과 전화로 다투는 과정에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말하고 읍내로 향한 A씨를 임의동행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완도=김광수 기자

광주서 택시 역주행 충돌 사고...3명 중상

5일 오전 0시2분께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아파트 주변 편도 5차선 도로에서 A(59)씨가 몰던 택시가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B(33)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B씨와 택시 승객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가 역주행한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울산서 시내버스 담벼락 부딪쳐 전도 2명 사망

5일 오전 9시28분께 울산시 북구 아산로에서 133번 시내버스가 도로변 공장 담벼락에 부딪쳐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탑승객 등 총 48명 가운데 이모(40·여)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쳐 위중한 상태다. 나머지 37명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들은 인근 울산대학교병원과 울산시병원, 울산병원, 동강병원, 동천동강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나자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들이 정차 후 사고현장으로 몰려와 전도된 버스를 밀어주고 경상자들을 부축하는 등 구조 활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경찰은 동구에서 남구 방면으로 운행하던 버스가 갑자기 앞으로 끼여든 승용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70대 노모 살해 후 자살 시도 50대 영장

인천 부평경찰서는 5일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살해한 A(57)씨에 대해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15분께 인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79)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누나에게 전화로 “내가 어머니를 먼저 보냈다”고 말한 뒤 흥기로 자신도 목을 찢어 자살을 시도했으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씨의 전화를 누나는 A씨의 딸에게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집에서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